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 츠빙글리 윤리의 현대적 적용

정미현 (연세대학교)

I. 들어가는 말

II. 몸말

1. 16세기 스위스 취리히 종교개혁의 배경과 상황
2.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의 등장배경
3.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의 구조적 분석
4.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의 신학적 내용
5. 츠빙글리 윤리의 현대적 적용: 낸시 프레이저와 관련하여

III. 나가는 말

• ABSTRACT •

Divine and Human Righteousness: Modern Applications of Christian
Ethics by H. Zwingli

Chung, Mee-hy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thics of Swiss reformer Zwingli in the 16th century "Divine and Human Righteousness" which was the foundation of Christian ethics in the reformed tradition and to apply it for the 21st century in our contemporary world. A Theory of Justice of Zwingli primarily illuminated this purpose, and also attempted a dialogue with feminist political scientist Nancy Fraser in order to adjust it for the contemporary world. The format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ly, to introduce the background and content of the sermon of Zwingli "Divine and Human Righteousness" and to analyze the ethical principles of Zwingli; secondly, to introduce major subjects of Fraser's book regarding "redistribution", "recognition" and "representative" in threefold form. In summary, the theory of Justice of Zwingli is as follows: Justice of God is complete and perfect goodness, while justice of the human-being is not. Human-beings want to reach the justice of God. However this is not possible due to the imperfection of human-beings. That's the reason for Jesus's sacrifice on the cross and resurrec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social order, the justice of human-beings is required. In the purifying light of the Word of God the justice of human-beings could be corrected and renewed constantly. Ideas of Zwingli were inherited by many modern theologians who appreciated the Reformed tradition. Nancy Fraser is not related directly to this category. However in order to pursue the global justice where global injustice has expanded the convergence of theology and political science she is required. In recognition of the imperfection of human justice those who want to follow Christ will be constantly seeking justice for redistribution and recognition, speaking as representatives on behalf of the oppressed.

It could be as a response to global injustice, oppression and exploitation of humans by humans. Therefore to keep the eyes of a sentry and to take action globally are important. That's the way to follow reformed tradition today.

Key words: Zwingli, Divine Righteousness, Human Righteousness, redistribution, recognition, Nancy Fraser

I. 들어가는 말

마이클 샌들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 셀러가 되는 현상의 원인이 지식전달 혁명이라고 부르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지식의 민주화, 교육민주화 현상인 무크(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때문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교육기관에 대한 기대심리인지, 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의와 불만족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명확하고 중요한 사실은 사회정의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사회정의를 위한 구체적 대안이나 실천방안보다 이에 대한 이론적 담론에만 관심을 갖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이 사회정의를 향한 비판적 성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일일 것이다. 그러한 사회정의의 규범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정의는 이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본 논문은 관심하고 있다. 계약직, 청년 실업, 이주노동 등 분배정의의 문제와 성소수자, 결혼 이주자들에 대한 인정정의의 문제 등 사회 안의 갈등 요소들이 다양화, 다층화 되어진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즉 경제적 분배 문제만으로 이러한 복합적 현상들을 풀어나가기 힘들며, 분배 정의 뿐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여러 형태의 욕구에 대한 인정의 정의를 포함한 경제, 문화, 정치에서의 포괄적 정의론이 아울러 요청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 윤리의 토대를 놓은 16세기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의 사상 가운데 그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여성주의 정치 철학자 낸시 프레이저와의 대화를 시도하였다. 츠빙글리의 사상은 여러 형태로 종교개혁 전통을 중요시 하는 현대 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¹⁾ 낸시 프레이저는

1) 대표적인 인물은 개혁주의 전통을 중시하던 스위스의 경제윤리학자로 활동했던 아르투어 리히(Artuhr Rich 1910-1992)였다. 그의 대표저서인 경제윤리(Wirtschaftsethik)

이러한 일련의 신학자들과는 직접적 상관이 없지만, 인간의 정의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논의를 풍성히 하고 현대적 담론과 관련짓기 위하여 이러한 고찰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갖고서 츠빙글리의 대표적 설교 본문인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를 먼저 소개, 분석하고, 프레이저의 주요 원칙과 연관 짓고 정치적 공간을 확대하여 지구화된 정의를 추구해보고자 한다.

II. 몸말

1. 16세기 스위스 취리히 종교개혁의 배경과 상황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있는가 하는 개인의 신앙문제로 종교개혁의 길에 들어선 마틴 루터와 달리, 홀드리히 츠빙글리는 사회와 민족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종교개혁의 길에 이르게 되었다.²⁾ 16세기 당시 경제적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스위스의 많은 젊은이들은 이웃나라 왕과 교황의 용병이 되어 한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용병제도라는 비극 앞에서 교회는 빈곤의 악순환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제도를 통하여 부를 축적하는 모순과 부패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것이 츠빙글리로 하여금 종교개

1, 2권에서 리히는 츠빙글리의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에 드러난 사회윤리학적 기본 원칙을 현대적으로 적용하였고 지구화 시대의 자본주의의 횡포에 대안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츠빙글리의 사상을 현대의 경제윤리에 적용한 아르투어 리히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 임희국, “16세기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의 사회윤리에 조명해 본 오늘의 시장경제”, 『장신논단』 18(2002), 219-248.

2) 개인적 도덕성의 문제보다는 민족의 구원에 관심을 가졌던 츠빙글리는 하나님, 사회와 민족, 개인의 순서로 그 지평을 좁혀 나갔다. 참고: 티모디 조지, 『개혁자들의 신학: 주요 종교개혁자 4인의 삶과 사상. 루터, 츠빙글리, 칼빈, 메노 시몬스』, 이은선, 피영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157-161.

혁의 햇불을 들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중세 말기 유럽의 농민들의 삶은 그 당시 조선의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고단하고 피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위스의 농민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십분의 일을 바쳐야 하는 조세제도에 의하여 이들의 삶은 이중, 삼중으로 억압에 시달리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착취와 억압의 경제체제 속에 살아가던 농민들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해 가기 시작했고,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새로운 집권층의 통제방식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면서 여러 형태의 지역적 쟁기가 일어나게 되었다. 종교개혁의 기운이 싹터가던 시기 농민들은 종교개혁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개별적인 폐단의 철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회복, 즉 성서적 원칙에 따라 새로운 토대 위에서 새로운 인간사회의 건설을 요구하였다. 핵심 사안은 봉건제도 속의 조세는 성서에 없는 것이므로 당연히 철폐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었다. 하나님의 법은 우주적이므로, 지엽성을 떠나서 우주적 혁명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었다. 억압당하는 계층이었던 농민들은 낡은 교회체제를 유지하고 부적절하게 부와 재산을 축적한 수도원 교회재단에 십일조를 내야하는 등 부의 불균형한 분배를 문제시 하였다.

츠빙글리는 마틴 루터와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과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전반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었다. 두 사람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성찬론에 대하여 1529년 독일 마르부르크에서 논쟁을 벌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해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을 뿐 아니라, 교회와 국가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이들에게는 구별되는 점이 있었다.³⁾

3) 성만찬의 이해에서 루터는 공재설을, 츙빙글리는 상징설을 제시하였고,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서 루터는 이원론적 분리를, 츙빙글리는 비판적 긴장관계 안에서의 상호성을 제시하였다.

1291년 스위스는 각 지역 대표들이 모여서 계약 공동체를 이루는 계약 연방제(Eidgenossenschaft)국가체제로 시작되었다. 취리히는 1351년 이 계약 연방제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 주체는 수공업자들이었는데, 이들의 세력이 확장되고 귀족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였다. 종교개혁이 가시화 되던 16세기 초반 스위스의 계약 공동체 조직(Bündnissystem)이 13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그 기반이 더욱 공고히 되었다. 이렇게 지방분권적, 지방 자치적 특성이 있지만, 다양성 속의 일치와 연합(Unity in Diversity)을 이루면서 스위스의 국가체제가 발전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농민들은 여전히 도시 지주의 지배를 받는 계층이었고 조세제도의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다. 취리히에서는 새로 급부상한 수공업자 조합(Zunft)이 정치적 결의권, 행정적 통치권과 경제적 기득권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소의회와 대의회로 구성된 취리히 의회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대의회는 각 직업군의 대표자들 모임이었고, 경제발전을 주도한 반면, 소의회는 행정권을 지니고 있었던 직업조합 대표자의 모임이었다. 대의회와 소의회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결권뿐 아니라, 교회의 사안에 대한 의결권도 지니고 있었는데, 츠빙글리는 주로 소의회에 자문 역할을 하면서 소통하며, 취리히 종교개혁을 주도해 나갔다.⁴⁾

넓은 교회제도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용병제도와 연금법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커져갔다. 그리고 교회가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대다수의 민중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착취되어지는 현실에 대하여 츠빙글리도 그 비판의 강도를 점차 더 높여가고 있었다. 교회의 개혁을 사회의 개혁으로 이끌어갔던 츠빙글리는 정치적, 경제적

4) 마르틴 하아스, 『홀드리히 츠빙글리』, 정미현역, (서울: 한국기독교 장로회신학연구원, 1999), 69-85; 울리히 게블러, 『쯔빙글리』, 박종숙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105-107; 임희국, “16세기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의 사회윤리에 조명해 본 오늘의 시장경제”, 224-226.

체제변화에 대해서는 급진적이 아니라,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였다.

2.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의 등장배경

빈곤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구축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츠빙글리는 기독교적 사회윤리를 위한 신학적 성찰이 담긴 글들을 1523년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라는 글이다. 츠빙글리는 1519년 1월부터 취리히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인 그로스뮌스터(Grossmünster)에 부임하였고 개혁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 글의 발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교회와 수도원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수확한 농산물에서 내어야 하는 소출세 납부와 이자율에⁵⁾ 대한 논란 때문에 생겨난 농민들과 취리히 시의회의 갈등은 더욱 첨예화되었다. 이미 1522년 농민들은 그로스뮌스터 교회에 바치던 소출세를 거부하였다. 소출세 납부를 둘러싼 갈등은 1525년에 더욱 폭발하게 되었는데, 농민들은 사냥권, 어업권의 자유와 함께 용병제와 연금제 폐지 뿐 아니라,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소출의 십분의 일을 조세로 납부해야 되는 것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도시 지주에 대한 납부 거부 뿐 아니라, 교회 수도원에 납부하는 것도 거부하였다.

이러한 조세제도의 철폐를 주장했던 농민들과 급진주의자들은 십일조 형태의 조세제도와 사유재산 제도가 성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조세제도, 즉 십분의 일세의 철폐 내지 완화 요구에 대해 취리히 평의회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세제도와 십분의 일세의 납부를 계속해서 종용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츠빙글리는 나름대로의

5) 츠빙글리는 5% 미만의 이자율이 적정하다고 보았고, 농토 임대에 대한 적정 이자율은 매해 수확량에 대비해야 된다고 보았다. 또한 흉년일 경우에는 땅 주인과 소작농 사이에 공평히 그 부담을 나누어야 된다고 보았다.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려고, 인간의 정치, 사회적 질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피력하게 된 것이었다. 츠빙글리는 성서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이 이해한 새로운 사회관, 국가관을 피력하고자 한 것이었다.⁶⁾ 츠빙글리는 이러한 소출세의 완전 철폐가 아니라, 점진적 철폐를 제시하였고, 이것은 급진적 개혁을 원하였던 사람들에게는 만족스러운 방법이 되지 못하였다.⁷⁾ 츠빙글리는 이 조세가 성직자의 생활비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목적은 선하다고 보았던 것이다.⁸⁾ 또한 인간의 정의의 차원에서 츠빙글리는 조세제도의 합법성을 옹호한다. 그는 조세제도의 완전 철폐를 주장했던 급진주의자들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 츠빙글리가 이처럼 비교적 온건한 개혁, 점진적 개혁을 원했지만, 분배의 문제를 등한시 했던 주교와 성직자들, 영주들, 권력자들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을 비판하고 평화의 교란자들로 간주한 점을 보면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았던 것이다.

이 글의 발표시점도 주목할 만한데, 1523년은 1차 취리히 논쟁에서 결

-
- 6) 마르틴 하아스, 『홀드리히 츠빙글리』, 138ff. 이 책에서 마르틴 하아스는 역사학자로서 츠빙글리에 대해 자세히 접근하고 있다. 츠빙글리의 생애에 대한 연대기적 접근으로는 다음의 글을 참고: 자끄 꾸르브와지에, 『(개혁신학자)츠빙글리』, 이수영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Samuel Macauley Jackson, *Huldreich Zwingli, the reformer of German Switzerland, 1484-1531*, (Whitefish, MT: Kessinger Pub., 2007).
- 7) 이러한 급진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재세례파 운동을 주도했는데, 1527년 1월부터 이들에 대한 공개처형이 자행되었다. 취리히 종교개혁의 어두운 일면을 반영한 이 사건에 대한 죄책 고백이 1983년에 있었고, 2004년에는 하인리히 불링거 탄생 500주년을 맞아 취리히 교회 당국은 공개처형이 있었던 리마트 강가에 속죄와 화해의 기념비를 마련하였다.
- 8) 농민들의 동요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있었고 1523년 9월 취리히에서는 교구의 변혁이 이루어졌다. 장례와 성사등과 관련된 비용은 면제되었으나 십일조의 조세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수도원은 점차로 학교로 바뀌어졌고, 여전히 수도 참사원의 지위를 가졌던 교사들이 이 조세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농민들의 조세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마르틴 하아스, 앞의 책, 144.

의된 내용에 따라서 종교개혁이 신앙적, 영적 차원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 공동체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들과 의무들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가던 시기였다. 또한 이 해에 츠빙글리는 종교개혁을 위한 67명제와 그 해설집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명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자와 조세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시 피폐된 생활환경 속에 살아가던 농민들은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자와 십분의 일세를 감면하거나 완전한 철폐와 모든 지배와 종속적 관계가 청산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지향하고자 봉건 영주들의 비호를 받아야 하였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농민전쟁 시 농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그들을 억압하는 세력을 지지하였다는 오점을 남겼다. 츠빙글리는 이와는 달리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정의롭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당시 농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해결하고 싶었던 주요쟁점이 된 것은 십분의 일세의 조세제도였다. 츠빙글리는 절제 없는 이윤추구와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착취가 하나님 나라에 모순된다고 보았으며, 성서적 근거들과 함께 이러한 주장을 펴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공권력을 인정하면서 조세제도의 합법성을 아울러 피력하고 있다. 츠빙글리는 그의 설교에서 그리고 이후의 글들에서 다각적 방법으로 취리히가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소문에 대응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섰다. 츠빙글리 연구 전문가인 에른스트 작서(Ernst Saxer)⁹⁾에 따르면 그가 맞서야 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관심을 갖은 사람들이었다. 첫째 교황의 권위와 가톨릭적 질서를 확고히 붙잡으려는 가톨릭 전통주의 숭배자, 둘째 여타의 다른 것을 고려함 없이 하나님의 의지를

9) 작서는 츠빙글리 연구 전문가로 알려진 스위스의 신학자이다. 츠빙글리의 중세기적 독어를 현대독일어로 옮기는 작업을 주도한 책임자이며 바로 이 부분의 원고를 현대어로 번역 맡은 신학자이다. 참고: 홀드리히 츠빙글리,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 정미현역, 『말씀과 교회』, (서울: 한국 기독교 장로회 신학연구소, 2008), 46호, 260-261.

빌미로 모든 인간적 질서들을 철폐시키기를 주장하는 과격한 사람들, 셋째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경제 질서 혹은 국가의 능력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현상유지자들”, 넷째 복음을 이데올로기화하여 의무로 여겨지는 질서와 비판을 위한 근거를 억지로 끌어내려는 이들, 다섯째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여섯째 강력한 도시 베른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종교개혁을 위하여 지지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종교개혁을 향한 균형성을 갖지 못한 귀족주의자들이었다. 그래서 이 글을 베른에서의 종교개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지지자에게도 헌정한 것이다.¹⁰⁾

3.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의 구조적 분석

츠빙글리는 “정의”라는 개념을 가장 핵심적으로 설정하면서 위에 언급된 복합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글은 1523년 세례자 요한을 기념하는 날인 6월 24일 수요일, 취리히 그로스뮌스터에서 행하여졌던 설교를 보완하고 문서화하여 1523년 7월 30일 위크트란드에 베른의 주교좌신부이신 바텐빌의 니클라우스에게 헌정된 설교문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가 무엇인지 각각 성서와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관계성에 대하여 츠빙글리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츠빙글리는 여기서 그 자신과 종교개혁적으로 비슷한 성향을 지닌 동지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소위 “급진적 종교개혁”성향의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설교문을 통하여 츠빙글리는 베른교회의 지도자에게 종교

10) 츠빙글리의 이 설교문의 완역본은 다음을 참고: Huldrych Zwingli, *Schriften I*, hrsg. von Samuel Lutz(u.a.),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95), 155-213.; 홀드리히 츠빙글리,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 265-329. 이 글은 최근 츠빙글리 전집의 번역 일환으로 재번역되었으나, 이 논문에서는 위의 정미현의 번역본을 참고하였다. 홀트라이히 츠빙글리, 『츠빙글리 저작선집 1』, 임걸역,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198-261.

개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취리히 시의회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츠빙글리는 1523년 7월 14일의 “67명제에 대한 해설집”을 발간하였으므로 이 글은 자신의 종교개혁 명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츠빙글리는 베른의 주 교좌 신부가 자신의 견해에 동의하고 개혁에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헌정사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많은 모순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기술한 글이... 당신에게 낯선 것이 되지 않고, 바라건대 당신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수용하게 되길 굳건하게 소망하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책자들의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며, 세상적 물질에 대한 불화와 알력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책자들을 견고하게 하고, 올바르게 이끌며, 국민들과 하나되게 만든다는 것을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정책자들이 그리스도적이며, 즉 하나님에 의하여 규정된 도리를 따르는 한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교회의 신앙인들과 함께 이 글을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물어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그분의 인식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시작하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완성할 것입니다...”¹¹⁾

이 글의 형태를 분석하여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정의, 둘째 인간의 정의, 셋째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츠빙글리는 어떻게 인간이 행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인간에게 요청하는 열가지의 사항을 정리, 소개하고 난 뒤에¹²⁾ 어떻게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로마서

11) 홀드리히 츠빙글리, 앞의 글, 263-264.

12) 이 열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면관계상 여기서 언급되지 못했고 다음을 참고: 홀드리히 츠빙글리, 앞의 글, 271-274.

13장 1-7절을 주해하면서 다루고 있다. 츠빙글리는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적 정의를 다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고 있다. 또한 츠빙글리는 인간의 본래적 악한 습성, 인간의 탐욕, 인간의 이기적 육체적 욕망의 세 차원을 언급하고 이것을 세부적인 사항으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파급된 작은 항목들을 다시 한번 열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4.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의 신학적 내용

하나님은 정의이며, 완전하시며, 경건하고 지고 선 그 자체이다.¹³⁾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정의로울 수도 경건할 수도 선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계시되며, 댓가 없이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며, 욕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도 또한 이러하길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면 우리도 완전하여야 한다. 즉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모든 근원적인 멸망됨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 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속한 것임을 아는 것이다. 또한 우리 스스로만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 욕망에 떨어져서도 안 되고, 물욕이나 공명심이나 음탕함에 물들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즉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워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아드님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고, 이것이 복음이다. 츠빙

13) 이 이하 부분에서 “아름다움”을 “완전함”이라고 번역했고, 이 말은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의 후계자로 츠빙글리의 글을 당시 국제 통용어인 라틴어로 번역한 신학자인 루돌프 그발터(Rudolf Gwalther 1519-1586)의 “퍼펙티오” 개념에 상응한다.

글리의 표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우리는 여기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올 수 없음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처럼 흠 없고, 순수하며, 의롭고,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속한다고 생각하시려면, ‘순수’라는 것을 ‘성(性)적 교류 없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깨끗함’이라는 점에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대해 모든 인간은 회의를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과연 욕정이나 욕망 없이 순수한 마음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도 하나님 안에 거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분 안에 거하려면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비참함과 무기력함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시고 방법을 찾으셔서 그분의 의와 우리를 화해케 하시고, 우리가 그 분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드님을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순수한 마리아에게서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으며... 죄 없는 그 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견디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를 이루셨고, 그 외엔 어떠한 인간도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자유로운 은혜와 자비에 힘입어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도록 값을 치루셨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은 복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¹⁴⁾

성서가 말하는 계명, 특히 십계명을 성서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살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인간 사회에는 인간의 정의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마음에 적용되는 것이며, 그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이다. 인간의 정의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¹⁵⁾ 인

14) 홀드리히 츠빙글리,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 269.

간의 정의는 인간이 품은 마음 자체를 심판할 수 없고, 그 마음이 가져오는 결과만 처벌할 뿐이다.

“...인간 앞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의로운 사람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롭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누구든지 하나님의 정의의 척도에 따라보면, 흠 없고, 맑고, 순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무기력함, 못된 짓, 근원적 멸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¹⁶⁾

인간의 정의는 흠이 많고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그나마 그러한 정의가 작용하지 않을 때 인간은 동물적 삶과 다를 바 없게 된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랜 세월동안 이미 계시되어 온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를 받아들이려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는 하지만, 각자의 틀에 맞추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에 접근하기 위하여 특별한 열정을 갖고 다가갈 때에 필요한 것은 복음의 빛이다. 츠빙글리의 표현을 빌어보면 다음과 같다.“...하나님이 인간을 능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인간의 정의를 능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정의에 아무래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¹⁷⁾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순결함에 아무 것도 더 보탤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모두 부정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츠빙글리는 세속적 집권자들에게 인간을 선한 방향으로 유도

15) 참고: 마르틴 하야스, 앞의 책, 139-140.

16) 홀드리히 츠빙글리, 앞의 글, 280.

17) 홀드리히 츠빙글리, 앞의 글, 267.

하기 위한 복음의 자유로운 선포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기독교인은 국가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므로 그 권위의 인정을 촉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츠빙글리는 조세의 납부도 지지한 것이다. 다만 츠빙글리가 저항권을 인정한 것은 세속의 집권층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자유를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는 선한 국가에서 상호작용하고, 상호침투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츠빙글리가 바라본 교회와 국가의 관계였다. 그 관계란 서로 무관하게 평행선을 달리는 별개의 것도 아니고, 서로 상하 위계질서적인 서열과 종속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정 정치적으로 동일시화된 것도 아니고, 서로 각각의 영역이 있지만 건설적 비판의 여지를 남겨주고 있는 것이다. 츠빙글리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복음의 빛에서 세속의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로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인문주의적 소양을 풍부히 갖추었던 츠빙글리는 정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데, 그리이스 고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나오는 개념을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정의를 묘사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것을 주기 때문에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분을 이러한 척도로 가늠하려 한다면, 우리가 마치 그분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 존재 자체가 모두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주시라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그분이 주는 것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¹⁸⁾

츠빙글리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거나 훔치지 말라는 것이 율법에 명령된 것임을 분명히 알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어야만 하는 분배정의에 대하여 강조한다. 즉 분배되지 않은 부가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인간적 정의에 의하여 드러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국가 권력도 누군가를 먹이고, 돌보고, 옷 입히고 하는 등등의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것을 행하도록 위임받은 것이다. 신앙인들에게는 인간적 정의만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인간적 정의 안에서 신앙인들은 그 불완전성을 인식하며, 더욱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¹⁹⁾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인간의 정의를 아울러서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와 민족의 구원의 문제에 비중을 두었던 츠빙글리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비판적 연대를 주장한 것이다.²⁰⁾

18) 홀드리히 츠빙글리,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 266. 여기에서 나오는 “각자의 것”이란 표현은 “Suum cuique tribuens(여러 사람 가운데 각자의 것을 나누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I, 9에서 찾아볼 수 있다. 츠빙글리는 인문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전으로부터 지혜를 찾으려 했다. 특히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름다움과 추함, 미덕과 악덕의 개념을 차용해서 베푸는 능력으로써의 미덕과 합법적 재화 소유를 정의라고 보고 그것을 미덕이라 보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하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I』, 이종오역, (서울: 리젠, 2007), 133.

19) 홀드리히 츠빙글리, 앞의 글, 299.

20)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츠빙글리는 그의 종교개혁 67명제가운데 34-43항에서 다루고 있다. 국가체제에 대한 복종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를 통한 국가의 통치를 인정한다. W.P. 스티븐스,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박경수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207-213.

“...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간적 정의를 수호하고, 세금의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점에서 국가권력이 그 무엇도 놓쳐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이 말씀에 상응해서 항상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의 수호자들에 맞서서 규범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방법으로 한도를 정해야만 하는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교황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이해하실 때까지 그러한 권력자들을 참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차면 분명히 처리하실 것입니다... 많은 국가 권력자들 가운데에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서 몇몇 영적, 종교적 지도자들처럼 처벌과 훈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동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들의 자리를 오히려 뽐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하여 징벌자로 하여금 돌아보시게 할 것이며, 그를 멀리 내 치시게 될 것입니다...”²¹⁾

츠빙글리는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복종은 때로 불복종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국가에 대한 참여와 복종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아야 하며, 민주적 절차를 통한 국가의 통치를 인정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츠빙글리가 주장한 것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다.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양심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영혼은 하나님 이외 그 누구에 의해서도 인식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자유롭게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이 자유롭게 되면, 그 누구도 더 이상 영혼을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²²⁾

21) 홀드리히 츠빙글리, 앞의 글, 311.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자유한 영혼을 지니고 언제든지 끊임없이 노력하여 성숙될 것이나, 우리의 정의로 인하여 자만하지 말 것을 권면한다.²²⁾

요약해 보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본래부터 악하여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른 인간에게 속하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 것이기를 바라며, 아담의 타락부터 자기 유익만을 구하기 때문이며, 육적인 것을 탐한다. 이러한 근원적 타락성에 젖은 인간이 비이성적 동물적 삶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두 가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구속력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공평성을 지닌 국가의 공권력이다. 이렇게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이끌어 가는 등불이 되지만, 아울러서 국가의 공권력을 인정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질서 유지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국가 공권력을 교정하게 하는 기능도 지닌다.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료에게는 검을 주셨고, 설교자에게는 말씀이 있다.²⁴⁾

5. 츠빙글리 윤리의 현대적 적용: 낸시 프라이저와 관련하여

사회주의의 몰락과 자본주의의 승리로 표현되는 21세기 지구화 시기에 어떻게 하면 전 지구적으로 공동체 문화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상승효과

22) 홀드리히 츠빙글리, 앞의 글, 302.

23) 홀드리히 츠빙글리, 앞의 글, 325.

24) 1531년 초여름에 작성되고 츠빙글리의 사후 불링거에 의하여 1536년 출판된 “신앙의 주해”라는 글에서도 츠빙글리의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는 집약적으로 표현된다. 즉 이들은 서로 상호 의존적이며, 특별히 정부없이 교회가 있을 수 없다. 교회와 국가는 몸과 영혼처럼 이원적 합일을 이룬다. H. 츠빙글리와 H. 불링거, 『츠빙글리와 불링거』, G. W. 브로밀리 엮음, 서원모, 김유준역,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1), 302. 종말론적 실존을 가진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 최윤배, “츠빙글리, 부처, 칼빈의 종말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8(2005), 189-190.

를 증대시킬 수 있겠는가를 윤리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지금까지 츠빙글리의 대표적 설교문인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를 고찰하였다. 본 장에서는 그의 사회, 경제윤리 사상을 담은 정의론을 현대적으로 재적용하는 시도를 하기 위하여 “분배와 인정”, “지구화의 정의”의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한 낸시 프레이저와의 대화를 추구해 봄으로써 츠빙글리 신학의 유산을 현대적으로 되살려 보고자 한다. 프레이저의 정의론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속의 하나님의 정의의 차원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프레이저는 다만 인간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성 속의 정의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 정치적 정의를 추구하는 점에서 츠빙글리의 인간적 정의론과의 접촉점을 찾아볼 수 있겠다.

1) “분배냐 인정이냐?”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기회의 평등을 말한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1971)과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자유주의적 평등』(2002)에서 말하는 분배 정의이론이나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공동의 이익과 선을 추구하자는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2009)의 정의론에 이르기까지 이 주제에 대한 논쟁들은 20세기에 다양하게 전개되어왔으나, 이론으로 머물러서 현실적용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론의 한계성을 보완하여 정치 사회적 실천 가능성과 연관된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낸시 프레이저와 악셀 호네트의 『분배냐, 인정이냐?』이다.²⁵⁾ 지금까지 언급된 츠빙글리의

25) 낸시 프레이저와 악셀 호네트는 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담고 논쟁한 이 책에서 분배와 인정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니라는 데 일치한다. 그리고 분배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경제 만능주의의 시각도 교정하게 한다. 반면에 프레이저는 분배와 인정의 밀접한 연관성을 강조하고 둘 사이의 환원될 수 없는 가치를 말하면서 새로운 정의론을 주장하는데, 호네트는 분배가 인정의 한 방법이며, 표현이라고 보아서 분배가 인정 안에 포함되는 것을 주장한다. 두 학자는 서로 구별되는 입장을 견지하면

정의론을 현대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여성주의 정치철학자이자 비판이론가인 낸시 프레이저의 이론을 여기에 연관지어 보고자 한다. 그녀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 3세대에 속하는 악셀 호네트와 저 유명한 분배와 인정에 관한 논쟁을 벌였다.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들과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각각의 주장을 인정해야 되는 목소리도 상당히 커지게 되었다. 또한 이주 노동자 100만의 시대를 너머서서 다문화, 다민족, 다종교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포용성과 다름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는 요구가 더욱 증대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정에 대한 요구가 경제 정의와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인지, 오히려 개인의 실존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이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분배 정의와 경제 민주화의 논의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견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인정과 분배 사이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것은 이상 사회를 추구하는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비판적 정의론이다. 그 기본 바탕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정의와 평등을 향한 몸부림은 역사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으며, 대안적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사회이론의 정의론은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목적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²⁶⁾ 경제, 정치, 문화의 세가지 영역에서의 부정의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 받는데, 때로는 그것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지만, 때로는 각 영역에서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갖고 부정의가 드러나게 된다

서도 거대담론으로써의 정치철학과 사회비판이론을 결합하여 현대사회에 필요한 정의론을 도출하고 민주화하고자 한다. 낸시 프레이저, 악셀 호네트, 『분배냐, 인정이나?: 정치철학적 논쟁』, 김원식, 문성훈역, (고양: 사월의책, 2014).

26) 낸시 프레이저, 악셀 호네트, 앞의 책, 396.

고 보는 것이 프레이저의 견해이다. 프레이저는 인정과 분배가 각각 필요하다는 이차원적인 정의론을 말한다. 분배정의를 분배 요구와 인정 요구로 갈라지게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립보다는 이 두 가치를 결합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오늘날 정의는 분배와 인정 모두를 요구하고 있다”²⁷⁾는 것이 프레이저의 주장이다. 현대사회의 불의가 지니는 복잡성, 다차원성 때문에 분배와 인정의 통합이 중요하며, 정의론도 단순하게 “일차원적”으로 접근될 것이 아니라, “이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레이저는 인정에 대한 접근도 한 개인의 존재론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 계급적 관계에서 살펴보고 있다. 경제체제가 서로 맞물려 있는 전 세계적인 지구화의 상황에서 신분질서와 계급구조, 자본의 연관성 속에서 분배와 인정은 이차원적으로 파악됨으로써 계급과 신분 사이의 다중적 위험성을 간파할 있다고 본다. 즉 현대사회에서 분배와 인정은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분배 없는 인정은 추상적이고, 인정 없는 분배는 공허하다. 지배와 계급, 권력과 종속의 구조 속에 체제화 된 현대 자본주의는 소수를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한다. 이런 상황에서 불의와 종속의 차원들을 완화시키고, 참여의 원리를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정의론의 민주화, 대중화가 필요하다. 문화와 정치, 경제의 복합적 관계는 인정과 분배를 둘러싼 정의론을 지탱하는 기본적 씨줄과 날줄로 엮여져 있다.

자원과 부에 대한 보다 정당한 분배를 추구하고, 평등주의적 분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정의 담론과 인정요구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관건이다. 분배, 인정 두가지의 가치를 모두 중요시하는 프레이저는 최상의 분배정치와 최상의 인정정치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정과 분배의 화해를 추구하도록 시도한다. 물론 분배와 인정을 포함하여 개혁의 시도를 하는 과정

27) 낸시 프레이저, 악셀 호네트, 앞의 책, 26.

중에 많은 사회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평등요구와 차이의 인정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츠빙글리의 윤리를 적용하여 보면 인간의 유한성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인간의 상대성 때문에 분배와 인정의 적용 과정에는 여러 형태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완전한 정의를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분배정의와 인정요구를 연관짓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 점이 츠빙글리가 16세기 취리히 상황에서 포착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계층간, 계급간의 갈등이 증폭되던 중세기 말, 수공업자들이 신흥 귀족으로 등장한 반면에 농민들의 여건은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는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인정하면서, 분배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분배되지 못하고 독점되는 부를 죄악이라고 보았던 츠빙글리는 예를 들어서 성상, 성화 그 자체를 문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숭배를 신학적인 이유에서 문제시 했다.²⁸⁾ 그 뿐 아니라 츠빙글리는 경제정의적 측면에서 이와같은 숭배사상을 비판했다. 츠빙글리는 일반 대중들이 지닌 현실적 종교적 신심을 무시하지 않았고, 그것을 끌어안고 포용하면서도, 성상이나 마리아 숭배로 인한 낭비와 허례에 대한 그의 비판은 철저하였다. 요란하고, 호사스러우며 현란한 성상숭배나 성모 마리아 숭배가 아니라 궁핍에 시달리는 이웃을 구조적으로 돕는 것이 참되고 올바른 마리아 숭배라는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적 외침은 사회개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호소력을 지녔다.²⁹⁾ 그래서 츠빙글리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모든 호화로운 예식과 장식물을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적으로 표현한다.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하여 더 이상 탐욕의 별레가 오랜 동안 우글거리는 금, 은, 보석으로 치장하려들지 말고, 그런 돈이 있으면 마리아

28) 정미현, “츠빙글리의 마리아론”, 『한국 조직신학논총』, 1999(4), 330-331.

29) Vgl. Das Marienlob der Reformatoren, M. Luther, H. Zwingli, J. Calvin, H. Bullinger, hrsg. von W. Tappolet, (Tübingen: Katzmann, 1962), 257.

의 가련한 아들 예수가 행한 것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어야 한다.”³⁰⁾ 또한 성화와 성상숭배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는 이런 우상을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마치 전쟁터에 나간 용병이라도 되듯이 갑옷을 입혀놓고 다른 성지는 방탕이나 아니면 포주처럼 꾸며 놓고 여자들이 그걸 보고도 경건한 마음을 일으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성녀들의 경우는 꼭 창녀처럼 꾸며 놓아서 남자라면 영예롭지 못한 영똥한 발상을 하도록 유혹이라도 하라는 뜻이 아주 매끄럽고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묘사해 두었습니다.”³¹⁾

또한 츠빙글리가 용병제도의 폐지를 추구했던 것은 그가 농민들의 요구를 인정하고, 인정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는 용병제도로 부를 축적하고도 부의 분배를 이루지 않고 독점하였던 당시 교회 지도부에 대하여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가축을 잡아먹는 늑대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늑대를 잡으러 몰려 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늑대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항도 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들을 잡아 흔들면 금화와 은화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들을 비틀어 짜면 당신의 아들과 형제 그리고 아버지와 좋은 친구들의 피가 새나올 것입니다.”³²⁾

수도회 복장을 하고 먹고 남을 정도로 양식이 풍부했으나 나누지 않았

30) H. Zwingli, “Der Hirt”, Schriften-Huldrych Zwingli, hrsg. von T. Brunnschweiler und S. Lutz,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95), 289f. Vgl. R.M. Bäumlner, Das Marienlob der Reformatoren, Schweizerisches Reformiertes Volksblatt, 1997, Nr. 6, 3.

31) 마르틴 하아스, 앞의 책, 105.

32) 마르틴 하아스, 앞의 책, 104.

던 수도사들을 가리켜서 츠빙글리는 “변장한 살찐 돼지”라고 부르기도 하였다.³³⁾ 츠빙글리는 인간적 공동체가 평화롭게 유지되도록 하나님은 부가 서로 공유되기를 촉구하심을 강조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적 정의에 이를 수는 없지만, 인간의 상대적 정의를 제도화하기 위해 분배와 인정의 두 차원을 고려하였던 것이다. 21세기 현대사회의 복잡한 상황적 변화 때문에 16세기의 츠빙글리의 정의론을 그대로 이식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현대적 적용도 가능하다. 그 점에서 정의의 내용과 주체, 방법을 다차원적으로 조각하여 정의의 틀을 세우고자 했던 프레이저와 만날 수 있는 것이다.

2) 지구화 시대의 정의

프레이저는 『분배인가 인정인가』에서 현대사회의 쟁점들을 재분배와 인정과 관련하여 그 상관성과 독립성을 밝히고자 하였던 반면에, 그녀의 또 다른 저서이자 위의 책의 논의를 더욱 보완하고 심화시킨 『지구화 시대의 정의』는 한 국가 안에서의 문제 뿐 아니라, 그 지역적 경계선을 넘어서서 거시적 차원의 사회 부정의의 논의를 다루고 있다. 사회주의 몰락으로 인하여 자유시장경제주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오늘날의 세계는 지구화적 정의를 말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모순을 사회현실의 가장 핵심적인 불평등 원인으로만 강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프레이저의 논지이다. 프레이저의 주장은 일련의 사회과학자들이 학문적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정의론이 아니라, 다수가 민주적이고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정의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추구한다. “초국적 정의를 개념화하고자 하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 원칙의 옹호자들은 상호의존적인 사회관계들에 호소함으로써 당

33) 마르틴 하아스, 앞의 책, 104-105.

사자 문제에 관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한다.”³⁴⁾ 그런데 프레이저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 원칙”에서 “중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말하면서 결국 “협치(governance) 구조에 대한 포괄적 이해”³⁵⁾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의에 대한 담론이 공공의 논의를 통해 현실 문제 치유의 대안으로 까지 끌어올려 질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즉 공공성과 유효성 두가지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지구적 정의론의 문제를 영토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식에서 프레이저는 여성주의적, 젠더의 주제와 연관짓는다. 이러한 접근이 인정의 문제를 분배의 한 차원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악셀 호네트와 낸시 프레이저를 근본적으로 구별짓게 하는 한 차원이다. 이것은 젠더 정의가 갖고 있는 교차적 다원성(intersectionality)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한다. 이 한정된 논문의 지면에서 특히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프레이저가 미국의 복음주의와 신자유주의적 부정의를 연관지어 성찰한 대목이다. “미국의 여성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본질주의에 관해서 논쟁하는 동안에 자유시장과 기독교 근본주의 사이의 사악한 동맹이 조국을 장악해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³⁶⁾ 프레이저는 미국 보수주의 정치의 젠더에 대한 전략적 조작이 재분배정치에서의 후퇴를 은폐하기 위하여 젠더를 축으로 인정정치를 부각시키려 했음을 간파한다.³⁷⁾ 젠더로 채색되고 포장된 일련의 가치들과 선전들이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버린다. 예를 들어 기독교 근본주의 성향의 시민들은 낙태나 성 소수자에 대한 반감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

34) 낸시 프레이저, 『지구화 시대의 정의: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김원식 옮김, (서울: 그린비, 2010), 116.

35) 낸시 프레이저, 앞의 책, 118.

36) 낸시 프레이저, 『지구화 시대의 정의: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185.

37) 낸시 프레이저, 『지구화 시대의 정의: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186.

가결한 부정의한 사회구조의 문제를 보아내지 못하게 된다. 또한 복음주의의 특성으로 프레이저는 사회의 불안정성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현상을 지적한다. 신자유주의의 여파로 인하여 생겨나는 제도적 불합리성, 착취와 종속구조의 고착화, 사회복지의 보장성의 약화, 불안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복음주의가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원인규명보다는 그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견디어 낼 수 있는 이야기들과 일련의 피상적 실천방안들만을 제공하려 들기 때문이다.³⁸⁾

낸시 프레이저는 사회적 삶의 조건을 언급하는데 있어서 나에게 “좋은 삶”이 남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점에서 “옳은 삶”인지 또한 살펴야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 때문에 지엽적이고 부분적 정의가 아니라 포괄적인 지구적 정의의³⁹⁾ 문제에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재분배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퇴행적 문화정치를 활용하는 것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통찰력을 키운 다음에는 대표성을 갖고서 초국적으로 이에 응전할 수 있어야 한다. 요약하면 탈경제적, 탈영토적 시대에 다층적 갈등과 초국적 불평등, 부정의에 저항하는 방법을 프레이저는 3R인 분배(redistribution), 인정(recognition), 정치적 대표성(representation)의 세 차원으로 접근하였다. 즉 분배, 인정, 대표성이 균형 잡힌 방식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찰적 정의(reflexive justice)”⁴⁰⁾이론의 삼차원적 접근방식은 초국적 맥락에서 경제적, 문화적 차원과 아울러서 정치적 차원을 고려하는 것이다.

16세기 츠빙글리는 대의회와 소의회로 구성된 취리히 시의회의 대표성

38) 낸시 프레이저, 『지구화 시대의 정의: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190.

39) 지구적 대중매체,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을 이용하여 젠더 부정의를 자극하고 고착화하는 초국적 세력에 응전할 수 있는 초국적 정치의 필요성이 그래서 여기에서 대두된다.

40) 낸시 프레이저, 『지구화 시대의 정의: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129.

을 인정하였고, 그 안에는 다양한 직업군의 대표들이 자리하였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었고 이것이 협치 체제를 이루었다. 즉 인정, 분배, 대표성의 삼중적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당시 종교개혁을 이끌어내었던 방식이었고, 이를 토대로 오늘날 스위스가 민주적이며, 자율적 사회경제체제를 이루고 발전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방식은 이제 지역적 경계를 넘어 “탈 국민국가적 상황(postnational constellation)”⁴¹⁾에서 탈국가적 정의실현을 위하여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개혁주의 전통을 오늘날 이어나가면서 메타-민주주의를 범 세계적으로 되살리는 한 방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의론의 지형도가 달라지게 되고, 공론의 장을 16세기의 취리히에서 21세기의 초국가적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III. 나가는 말

계층간, 성별간, 세대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상호 소통과 만족감을 증대시키기 보다는 불통과 불만족이 확산되는 복합적 갈등구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나와 타자에게 적용되는 기대감과 잣대도 다르며 이중윤리가 적용된다.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하면 공동체 문화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상승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겠는지 모색하면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장로교의 뿌리를 놓은 츠빙글리의 사회 경제 윤리를 현대적으로 재 적용하는 시도로서 그의 사상을 함축적으로 살필 수 있는 그의 대표적 설교문인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를 우선적으로 고찰하였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종교개혁적 신학윤리를 현대에 재

41) 낸시 프레이저, 앞의 책, 137.

적용하는 시도로써, 낸시 프레이저의 사상과 연관지어 보았다.⁴²⁾ 그녀의 삼차원적 접근법이 초국적 연대성, 민주적인 틀의 설정, 해방적 사회변혁 기획이 가지는 전망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지배적 사유방식에 도전하며, 은폐된 부정의들을 폭로하게 하고 균형과 공간적 지도의 개념을 상상적으로 확대하는 그녀의 성찰은 지구화된 부정의를 해소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들에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정의론 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프레이저에게 결핍된 신학적 정의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의론의 확립과 실천을 위하여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의의 차원을 강조한 것이었다. 츠빙글리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된 두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으며 하나의 공동체임을 말하였다.⁴³⁾ 이것은 교회와 국가가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교회는 국가의 원칙을 따라야 하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국가가 만들어내는 불의를 시정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교회가 먼저 정화작용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은 더욱 자명하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비추어 볼 때 정의의 추구란 타자에 대한 인정과 상대적으로 불의한 경제체제를 개선하는 분배정의와 인정정의의 실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인간의 정의가 비록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탈 경제적이며 전 지구적인 복합적인 위기상황은 이론과 실천 사이의

42) 낸시 프레이저의 한계를 끌어내거나 그 이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이 논문의 주 관심사가 아니었다. 향후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이나 여성정치사회학자인 아이리스 마린온 영과의 비판적 대화를 포함하여 이 주제에 대한 간학문적 연구과제로 더욱 발전될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43) 권선중,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의 정체성 연구 :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 (장로회 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59; W.P. 스티븐스,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박경수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95.

생산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더욱 다원화되고 다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지구적 빈곤층이 그 빈곤을 야기하는 국제체제의 세력들에 도전할 수단 자체를 박탈당한 상황해서 “메타-부정의”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개혁주의적 전통을 따르는 의식화된 시민이고, 의식화된 기독교인의 과제인 것이다. 정의롭지 못한 틀에 의해 규정되어 정치적 발언권을 부정당한 다수를 위해, 이러한 위치를 확보하고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하위주체(subaltern)가 공인된 용어들(authoritative terms)로 말할 수 있도록 정의의 문법을 재구성해야 할 뿐 아니라⁴⁴⁾, 이들의 “변호인”의 역할도 아울러 감당해야 할 것이다. 중산층의 몰락, 계약직, 비정규직의 확대, 극소수의 사람들이 전 지구적으로 다수를 지배하는 극심한 지구화 시대에 재분배, 인정, 대표성의 차원에서 인간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에 비추어 본 인간의 제한적 정의의 틀을 수정, 보완하고 지평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츠빙글리의 다른 문헌들도 우리 신학계에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비판적으로 고찰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44) 낸시 프레이저, 앞의 책, 133-134.

참고문헌

국내논문

- 권선중,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의 정체성 연구: 67개 조항에 대한 해설과 논증』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임희국, “16세기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의 사회윤리에 조명해 본 오늘의 시장경제” 『장신 논단』 18(2002).
- 정미현, “츠빙글리의 마리아론” 『한국 조직신학논총』 1999(4).
- 최윤배, “츠빙글리, 부처, 칼빈의 종말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8(2005).

번역서

- 개블러, 올리히. 『쓰빙글리』 박종숙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 꾸르브와지에, 자끄. 『(개혁신학자)츠빙글리』 이수영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스티븐스, W.P..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 박경수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I』 이종오역. 서울: 리젬, 2007.
- 조지, 티모디. 『개혁자들의 신학: 주요 종교개혁자 4인의 삶과 사상. 루터, 츠빙글리, 칼빈, 메노 시몬스』 이은선, 피영민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 츠빙글리, 홀드리히.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 정미현역 『말씀과 교회』 서울: 한국 기독교 장로회 신학연구소, 46(2008).
- 츠빙글리, 홀트라이히. 『츠빙글리 저작선집 I』 임걸역.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츠빙글리 H. 불링거, H.. 『츠빙글리와 불링거』 G. W. 브로밀리 엮음, 서원모, 김유준역.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1.
- 프레이저, 낸시, 악셀 호네트. 『분배냐, 인정이나?: 정치철학적 논쟁』 김원식, 문성훈역. 고양: 사월의 책, 2014.
- _____. 『지구화 시대의 정의: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김원식역. 서울: 그린비, 2010.
- 하이스, 마르틴. 『홀드리히 츠빙글리』 정미현역. 서울: 한국기독교 장로회신학연구

소, 1999.

양서/논문

Bäumler, R.M., *Das Marienlob der Reformatoren. Schweizerisches Reformiertes Volksblatt* 6(1997).

Jackson, Samuel Macauley. *Huldreich Zwingli. the reformer of German Switzerland. 1484-1531*. Whitefish, MT: Kessinger Pub., 2007.

Tappolet, Walter, Albert Ebner(hrsg.). *Das Marienlob der Reformatoren. M. Luther. H. Zwingli. J. Calvin. H. Bullinger*. Tübingen: Katzmann, 1962.

Zwingli, Huldrych, “Der Hirt” *Schriften-Huldrych Zwingli*, hrsg. von T. Brunnschweiler und S. Lutz,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95.

_____. *Schriften I*. hrsg. von Samuel Lutz(u.a.),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95.

논문투고일: 2015. 02. 25.

심사개시일: 2015. 03. 13.

게재확정일: 2014. 04. 11.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의 목적은 기독교 윤리의 토대를 놓은 16세기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의 신학적 사회윤리론인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를 현대적으로 적용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츠빙글리의 정의론을 우선적으로 고찰하고, 또한 현대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여성주의 정치 철학자 낸시 프레이저와의 대화를 시도하였다. 본 논문의 형식은 츠빙글리의 대표적 설교 본문인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의 등장배경과 내용을 먼저 소개, 분석하고, 츠빙글리 윤리의 원칙을 분배, 인정 그리고 대표성으로 표현되는 프레이저의 주요저서의 주제어들과 연관 지어 보았다. 츠빙글리의 정의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 자체로 지고선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지만, 인간의 불완전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요청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고 이것이 복음이다. 인간 사이의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의 정의는 필요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정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하여 끊임없이 새롭게 정화되어야 한다. 츠빙글리의 사상은 개혁주의 전통을 중요시 하는 현대 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낸시 프레이저는 이러한 일련의 신학자들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전지구적 불의가 확대되는 21세기에 지구화된 정의론을 추구하기 위한 현대적 시도으로써 신학과 사회철학의 융합적 측면에서 이러한 고찰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의 정의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분배와 인정의 정의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며, 대표성을 갖고서 전 지구적 불의에 응전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과 착취를 최소화하게 하는 피수꾼의 눈을 지녀야 할 것이며 전 지구적 연대의식을 통하여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개혁신앙을 이어가는 것이다.

주제어: 츠빙글리, 하나님의 정의, 인간의 정의, 분배와 인정, 낸시 프레이저
